오늘의 게시판

삼별초 고려국 온왕제 오전 11시 진도군 의신 사천리

〈15일〉

행사

▲제 17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포럼=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강사로 참여 '2006년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관해 강연

▲제 3회 삼별초 고려국 온왕제=오전 11시 진도군 의신 사천리 왕온의 묘.

▲제 7회 동대항 목포시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한마당대회=오전 10시10분 목포시 유달경기장 내 게이트볼경기장.

▲거동불편 장애인 차량 이동목욕 서비스=광주시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16일〉

▲광주국제평화캠프 개막식=오전 9시30분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9시35분 태국(Som khom huenn), 필리핀(Jesus manuel santiago) 민중가수의 개막 공연. 18일까지.

▲남악신도시 Sun-city 조성 용역보고회=오후 4시30분 전남도 9층 상황실.

▲제45회 전남도민체전 출전선수단 해단식=오후 5시 순천시청 대회의실.

공연

▲국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방순회연주회=15일(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2006 호신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15일(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cts교향악단연주회=15일(월) 오후 7시30분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광주피아노 아카데미 정기연주회=16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주인권에 관한 '다람쥐나라'=16~18일 오전 11시, 오후 7시30분 일곡도서관 강당.

전시

▲조선대학교 60주년 기념 '조대민중미술운동사'전=26일까지 조선대미술관.

▲물처럼 바람 처럼전=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한국화가 박은용·오견규·박희석씨 등의 작품 40점 전시.

▲'선(禪) 달마화'전=1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6전시실. 한국화가 성인호씨의 달마도 작품과 자기 등 50여점 전시.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현대작가 초대전'= 21일까지 광주시 남구문예회관 전시실. 광주 지역 작가 26명의 작품 전시.

▲아름다운 우리그릇 생활자기전=16일까지 일곡갤러리.

▲송윤 서예원전=1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우제길전=6월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땅 사람 그리고 꿈'展=17일까지 지산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전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는 이수영·방우성·이이남씨 등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

▲국제현대미술 확산전=6월2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 061-853-0003

▲광주시립미술관 '즐거운 미술여행'전=28일까지 시립미술관.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아트·동화나라·미술나라 등 어린이 체험형 행사.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역사속의 오늘

▲세종대왕 태어남(1397)

▲청 나라와의 경계를 표시한 백두산 정계비 세움(1712)

▲러시아의 동물학자 메치니코프 태어남(1845)

▲종두법 받아들인 지석영 태어남(1855)

▲프랑스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 태어남(1859)

▲김두한 태어남(1918)

▲일본 이누카이 수상 피살(1932)

▲제3대 정부통령 선거(1956)

▲영국, 크리스마스섬에서 첫 수폭 실험(1957)

▲미국, 오키나와 반환협정 발효로 27년만에 일본에 정식 반환(1972)

▲가정의례준칙 의결(1973)

▲미국 네바다사막 지하 핵실험장에서 방사능 유출, 2천만달러 장비 피해(1986)

▲이문옥 감사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비리 폭로 (1990)

뉴스퀴즈

12. 2006 독일 월드컵에 출전할 23인의 태극 전사 명단이 발표되면서 축구국가대표팀이 월드컵을 향한 최종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꿈의 축구제전'인 월드컵은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1일간 펼쳐집니다.

개막전은 한국 시간으로 언제 열릴까요?

① 6월10일 ② 6월20일
③ 6월30일 ④ 7월10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01 >

→ 가로풀이

① 선거권자를 등재한 명부

※ ○○○○○는 구·시·읍·면의 장이 5월 12일(선거일전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작성함.

② 녹차로 유명한 전남지역의 한 고장

④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

※ 부재자투표는 ○○○○와 부재자투표소투표 2가지의 방법이 있음.

⑦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후보자는 그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⑧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을 받죠.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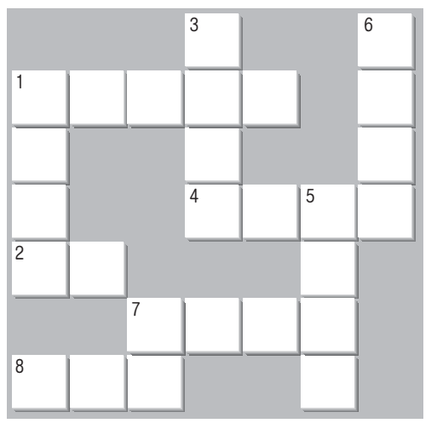
①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려고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종이에 인쇄하여 벽에 붙임.

③ 부정이 없는 공평하고 명백한 선거

⑤ 투표에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의 종이

⑥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명의 유권자가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제도/'○○○○'제

※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⑦ 미리 치르는 돈

▲지난주 정답자

송 순·광주시 남구 백운2동

안수현·광주시 서구 유촌동

〈함께 풀어봅시다 200회 정답〉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5월20일까지 정답을 적어 엽서·팩스·우편으로 주소·성명·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시면 10명을 추첨,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5-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우편번호 : 502-827

전화 : (062)374-8792, FAX : (062)381-089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5일(음 4월 18일 甲辰)

子 36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게 된다. 48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60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72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84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행운의 숫자 : 21, 16

丑 37년생 스스로 자파하는 격이요. 49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61년생 전화위복이니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73년생 애인과 이성교재가 있을 수도. 8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5, 43

寅 38년생 부부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50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어야. 62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4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으나 과시는 금물. 행운의 숫자 : 17, 27

卯 39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1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63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75년생 촌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2, 28

辰 40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52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64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76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1

巳 41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3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65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77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행운의 숫자 : 09, 33

午 42년생 문서 직업으로 인해서 대고역이 중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54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6년생 타에 의한 사언과 손재가 우려 된다. 78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08, 41

未 43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55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숙고하라. 67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호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79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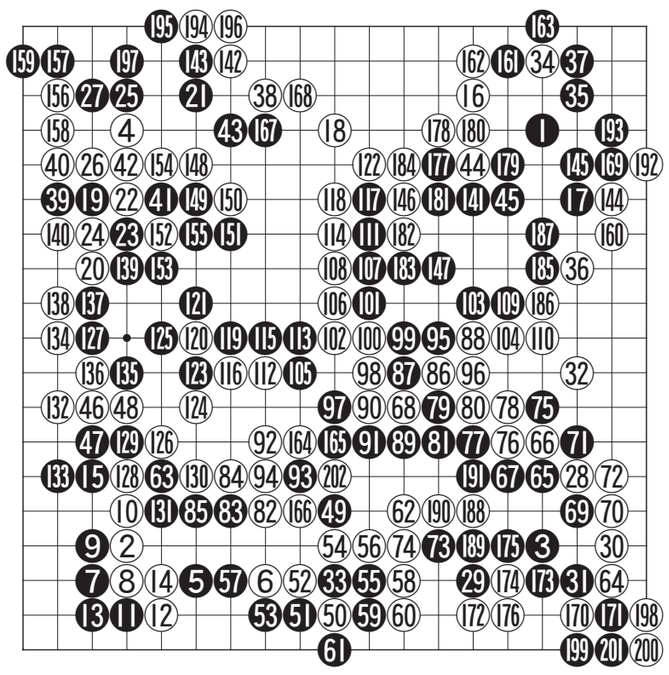
申 44년생 헛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6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8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되리라. 80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3, 43

酉 45년생 증식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 57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69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81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01, 44

戌 46년생 충의 불편사가 발생한다. 58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70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82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04, 35

亥 47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9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다가 오니 조심하라. 71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83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 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posco 광양제철소장배 바둑대회

〈최강부 개인전〉

'행운'의 승리 준결승 총보(1~202)

白 김복현(5단) 〈가야기우회〉 黑 기용성(5단) 〈하동화력발전소〉

결과부터 말하면 김복현 5단의 9집 반 대승이었다. 흑이 오히려 이 정도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었는데 기용성 5단이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후반전에 결정타를 여러번 놓치고 끝내기마저 일방적으로 당한 끝에 대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다.

초반 흐름은 김 5단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변 백 50으로 붙인 수가 문제의 수로 흑 51의 반발을 불러 85까지 백 다섯점이 잡혀서는 흑 우세의 국면이 되었다.

김 5단은 이후 80과 86의 강수를 비롯 122로 상변을 지키는 승부수를 날리는 등 투혼을 발휘하며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용성 5단의 패인은 초읽기에 몰린 탓도 있지만 백 5점을 잡은데다가 125로 좌변에서 빵때림까지 얻어내며 형세를 너무 낙관한데 있었다.

형세가 만만치 않다고 보았다면 하변 백 대마를 공격하는 패를 결행하여 결코 흑이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 5단의 행운의 한판승이다. 백 202 이하 생략. 백 9집반 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광주 GS KIXX, 리그 공동선두

광주 GS KIXX가 최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6 한국바둑리그에서 경북 월드메르디앙을 3-1로 꺾고 리그 공동 선두에 올랐다.

GS KIXX는 승점 4점을 확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성건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GS KIXX의 최철한 9단과 박정상 5단은 각각 윤준상 4단과 조한승 8단을 제압했으며, 이재웅 4단도 이정우 5단을 따돌렸다. 홍민표 5단은 유창혁 9단에게 무릎을 꿇었다.

한국바둑리그는 제한 시간 각자 10분, 초읽기 30초 3회다. 우승상금은 2억 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45>

How was it?

어땠었니?

A:How was it?
B:I couldn't get in. Too many people waiting in a line.
A:See? I told you so.
B:I didn't know that movie is such smash hit.

A:어땠었니?
B:들어갈 수가 없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구.
A:그런 줄 알았잖니? 내가 네게 말해줬는데.
B:난 몰랐지, 그 영화가 그렇게 대단한지를....

get in : 입장하다
in line : 줄 서서
See? : You see?의 생략된 형태이다.
smash hit : 대단한 성공(작품)
I didn't know와 that movie is such smash hit사이에는 접속사 that가 생략되어 있다.
I didn't know (that) that movie is such smash hit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45>

かれこれ7年ぐらいになりますね

이럭저럭 7년 정도 되었습니다

A:李(リ)さん、この□社(かいしゃ)に入社して長いでしょう?
B:そうですね、**かれこれ7年ぐらいになりますね**。
A:日本語(にほんご)もかなり上手(じょうず)になったでしょう?
B:いいえ、まだまだですよ。

A:이씨, 이 회사에 입사한지 오래 되었지요?
B:글쎄요, 이럭저럭 7년 정도 되었습니다.
A:일본어도 상당히 능숙하여 졌지요?
B: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先生(せんせい)になる(선생이 되다)
便利(べんり)になる(편리해 지다)
暑(あつ)くなる(더워지다)
入社(にゅうしゃ) : 입사
かなり : 꽤, 상당히, 매우
まだまだ : 아직아직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92>

他是我的同事

제 동료입니다

A:[illegible]?
B:他是我的同事。
A:是在一个[illegible]?
B:是的。
A:[illegible]
B:[illegible]
A:[illegible]?
B:[illegible]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292>

師恩 (사은)

스승 사, 은혜 은

사은(師恩)은 스승의 은혜이다.

사(師)는 집단(集團)을 나타내는 왼쪽부분(師)과 잡(帀 : 모두)이 첨부되어 '모든 집단' 또는 그 집단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은(恩)은 인(因)+심(心)으로, 마음을 덮쳐 눌러 무엇인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예전에 5월15일이면 초·중·고·대학의 이곳저곳에서 정다운 풍경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풍선을 불어 칠판에 장식하고 자그마한 케익에 촛불을 꽂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면, 사제(師弟) 모두가 가슴이 뭉클하여 눈가에 눈물이 고이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정다운 풍경이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유는 촌지(寸志) 근절을 명목으로 내세워 아예 학교가 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평소에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에 보답하는 생활을 실천함이 으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념일(記念日)을 빌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그 밑거름이 되어주신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존경(尊敬)과 감사(感謝)가 사제지간(師弟之間)에 오가는 작은 감동(感動)을 공유(共有)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기념일로서의 존재 의의(意義)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105